



엑스포개최지 정할 30국 BIE 대표단 오늘 여수 옵니다

세계박람회기구(BIE) 우편민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국제심포지엄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만찬에는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과 BIE 30여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8일부터 이틀동안 여수 현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가한다. /연합뉴스

지방 기업 법인세 최고 50% 인하

2단계 균형발전계획 보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공권력인 수용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방 출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의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를 지방이전기업에 한해 크게 내리는 방안과 현행 법인세 감면제도의 감면 폭은 물론, 감면기간을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을 지역발전의 정도와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감면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저한세율(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납부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시행되면 해당기업의 법인세가 3분의 1 내지 50%까지 줄어 들 수 있다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채희종기자 chae@

역시! '전남 인심'

작년 1인당 모금액 전국 2위...광주는 12위

'못산다 못산다'해도 전남엔 훈훈한 인심이 살아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의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1인당 모금액이 2천401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모금액도 목표액인 40억원을 넘어 44억원에 달했다.

1인당 모금액 전국 1위에 오른 곳은 충남. 총 모금액 59억원이었으며, 1인당 2천952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같은 기간 16억원을 모금했다. 1인당 모금액은 1천109원으로 전국 12위였다.

울산이나 부산, 경기 등 잘 사는 지역의 1인당 모금액은 예상외로 많지 않은 반면, 전남을 비롯한 충남, 경북, 제주, 강원 등 농촌 지역이 강세를 보여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을 무색케 했다.

1인당 모금액은 각 시·도별 모금 집계를 인구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올 캠페인의 총 모금액은 1천627억2천만원으로 목표(1천614

■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시·도별 1인당 모금액

순위	지역	1인당 모금액(원)	모금액(억 원)
1	충남	2,952	59
2	전남	2,401	44
3	경북	2,385	65
4	제주	1,888	10.4
5	강원	1,767	26
6	충북	1,717	26
7	전북	1,407	26
8	서울	1,346	139
9	부산	1,337	49
10	울산	1,263	14
11	대전	1,260	18
12	광주	1,109	16
13	대구	922	23
14	경기	847	92
15	인천	729	19
16	경남	678	21

억원)을 넘어 '사랑의 체감온도'의 눈금이 100.8도를 가리키게 됐다. 지난해 모금액 1천578억5천만원에 비해 3%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한 기업은 삼성으로 200억원을 내놓았으며, 현대기아차와 LG, SK가 각각 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광산업 올해부터 돈 된다

디지털 카메라용 LED모듈 등 7건 상품화...올 7,600억 매출 예상

한국광기술원이 지난해 개발한 광(光)산업 기술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 한국광기술원장은 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한국광기술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광산업 기술 13

건 가운데 '초고출력 380nm UV(자외선)LED칩' 등 7건을 올해 LG이노텍, 삼성전기 등에서 상품화에 들어

가 관련 산업의 고용·매출 등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광기술원내에 입주한 시험생산 업체들이 전년 대비 매출 61%, 고용 43%의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며 "올해 10여개 광 산업체가 각각 매출 100억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최고' 광기술 7건 상품화= 'LG이노텍'은 광기술원이 지난해 개발한 '7mW급 초고출력 UV(자외선) LED칩'을 올해 상품화한다. 이 칩은

현재 일본 '니치아화학(주)'의 제품보다 2배 이상 성능이 좋아 당장 위패 감지기에 탑재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조도인 60룩스급의 '디지털 카메라용 LED플래시 모듈'도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함께 상품화한다. 이 제품은 미국 루미레드사 제품보다 1.4배의 조도를 자랑한다. '라이텍코리아(주)'도 '네온사인 대체 LED'의 시판에 들어가 본격적인 반도체 조영 시대 돌입을 예고한다. '남영전구'의

'다운라이트 등기구용 20W LED전구', '오이솔루션'의 '2.5/4G급 발광 및 수광 소자', '500만화소급 CMOS 카메라 모듈' 등도 올해 상품화된다.

▲100억 매출 스타기업 '눈길'=광기술원의 기술 지원 등에 힘입어 대기업 1개사(LG이노텍)를 포함한 광주지역 광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6천393억원을 달성, 광산업 육성 1단계 완료 시점인 2004년에 비해 39.7% 증가했다. 고용인원도 3천700명에서 4천395명으로 늘어 18.7% 증가세를 보였다. 업체는 228개사에서 273개사로 늘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올해 관련 기업이 290개사로 늘면서, 7천664억원의 매출과 4천715명의 고용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소 광 산업체 중 '옵시스'(280억원)와 '신한포토닉스'(220억원)가 올해 2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90억원에 그쳤던 '오이솔루션'은 수출물량이 늘면서 18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유테론'(150억원), 대방포스텍(110억원), 휘라포토닉스(110억원), 디에스아이(100억원) 등의 선전이 기대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교원평가제 내년 전면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특별 교육

전교조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관련기사 6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이관 내 용의 '2007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교원능력

개발평가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3월 신학기에 초·중·고교 500곳을 시범운영 선도학교로 지정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실시된 시범학교 67곳의 7배가 넘는 숫자로, 전면 시행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교육부는 또 학교 인력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만 적용해온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가해 학생의 부모도 일정 기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병완
비서실장
인터뷰
▶ 5면

포항대학 창립 57년 역사상 초흥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신입생 모집 062-270-0114 ~ 7,062-200-019
새로 찾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입학문의 1588-4091 ~ T.061-380-5000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1062220-0541